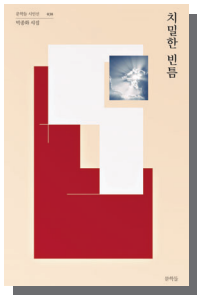


# 광주 민중가요 선봉·공연 연출가·시인이 쓴 치열한 삶의 기록

광주 출신 박종화 시인 시집 출간  
위선·거짓에 대한 고발담은 시집  
진심 담은 언어 유효한 올림 전해



치밀한 빈틈  
박종화  
문학들



박종화 시인

까이 가면/진실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치밀한 빈틈’ 중 ‘진실’에서)  
광주 출신 박종화 시인이 시집 ‘치밀한 빈틈’ (문학들)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그가 살아온 삶, 이 시대의 위선과 거짓, 상처와 고통을 진실하게 응시

하는 시선이 담겼다.

민중가요의 선봉이자 서예가, 공연 연출자, 그리고 시인. 박종화의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은 많지만, 그 하나하나가 그저 명패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게 예술은 곧 생존의 증명이며, 투쟁의 기억이고, 사랑의 실천이었다. 최근 박 시인이 23년 만에 펴낸 네 번째 시집 ‘치밀한 빈틈’은 바로 그런 그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든 시의 기록

이다.

이번 시집은 우리 시대의 위선과 거짓에 대한 고발이자 반성의 시집이다.

“병 주고 약을 주는 계급이 있구나/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갈지자 계급이 있구나”라는 구절은 사회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직시를 담고 있다. “치밀한 빈틈/악마의 빈틈/늘/결에 있다”는 시구는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모순과 광기를 응시한다.

박 시인은 진실을 말하고자 쉼 목소리로 노래한다. “노래가 없었다면/나는 칼끝을 걸었던 청춘 시절을/지나오지 못했으리.” 그에게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이는 곧 그의 인생사와도 맞닿는다. 1982년 박관현 열사 항거 당시 체포되고 이후 시위와 공연활동 등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른 박 시인의 삶은 예술과 현실, 신념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다.

박 시인의 시는 단지 고발에만 머물지 않는다. 살기 위해 피는 꽃을 노래하며 흔들리는 꽃잎보다는 움직이는 뿌리의 진실을 보라 권유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 감정의 뿌리와 몸짓의 진심을 말하는 언어는 이 시대의 독자에게도 유효한 올림을 전한다.

추천사 속 김해화 시인은 “배신에 관한 시로 채워진 시집이다”며 “동지들과 함께했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사랑”이 담겼다고 평한다. 백자 가수는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을 심판한 봄날에 듣는 환희의 합창”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곧 ‘치밀한 빈틈’이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깨우는 외침임을 의미한다.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박종화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치밀한 빈틈’은 그의 시선이 멈춘 자리,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조망하지만 강하게 가리키고 있다. 진심을 담아 전심전력으로

로 살아온 시인의 언어는 여전히 치열하고 아름답다.

박종화 시인은 시인, 싱어송라이터, 서예가, 공연연출 총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1982년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다. 1987년 음악 활동을 시작해 ‘파랑새’, ‘지리산’, ‘투쟁의 한길로’ 등 400여 곡을 발표했으며, 30여 차례 단독 공연과 다수의 사회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92년 시집 ‘바쳐야 한다’와 2권을 펴냈고 서예 활동으로 2007년 개인전 ‘소품’을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나의 삶은 커라’ 등의 타이틀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서예산문집으로 ‘나의 삶은 커라’와 3권을 출간했다. ‘30주년 5·18전야제’ 등 다수 프로젝트 총감독으로 참여하며 현재까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조혜원 기자

## 숨 가쁜 일상 속 놓쳐버린 ‘나’를 찾아서

시인 이근화 ‘작은 것들에~’ 출간

이근화 시인이 산문집 ‘작은 것들에 입술을 달아주고’ (창비)를 펴냈다.

이 시인의 신작은 일상과 존재, 사랑과 상실의 경계를 오가며 살아온 한 사람의 내밀한 고백이자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기록이다. 시인이자 네 아이의 엄마, 노모의 간병인,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인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근화 시인은 매일의 삶과 시를 함께 일궈왔다. 이 책은 그 꾸준하고도 고된 발걸음의 흔적을 따뜻하고 단단한 문장에 담아낸다.

육아와 간병, 생업의 압박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는 일상은 숨통을 조이지만 이 시인은 그 속에서도 작고 명량한 것들을 발견해낸다. 불확실한 내일과 고단한 오늘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시인은 가까운 것들부터 하나씩 돌보는 삶을 선택한다. 술방을 하나, 아이의 웃음, 지나가는 고양이, 길가의 무화과 같은 것들이다. 거창한 해답보다 작고 느린 발견이 시인의 문장 안에 반짝이며 살아 숨 쉰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에세이는 ‘딸이자 엄마, 생활인이자 시인’으로 살아가는 이근화 시인의 복잡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조심히 살펴봐 준다.

1부에서는 거칠고 뾰족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순하고 다정한 말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아이와 동화의 세계를 오가고, 병원과 주삿바늘의 세계를 왕복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자주 지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고단한 삶이지만 시를 쓰는 사람으로, 팬츠는 엄마로 남고 싶다는 바람이 그를 계속 걷게 한다.

2부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마주침에서 깨달은 이야기가 이어진다. 나눌과 돌봄의 자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의, 오랜 선배와 동료 여성들의 단단한 삶이 등장한다. 특히 시인은 자신도 실수투성이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한다. 말



과 가장 가까운 시인이기에 겪었던 말실수, 부끄러웠던 기억들에서 시인은 그런 실패 안에 진짜 ‘나’가 있다고 말한다.

3부에서는 상실과 애도, 그리고 다시 살아내야 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친구, 점점 멀어져간 사람들, 닿을 수 없는 시간들. 죽음과 이별은 너무 많고 삶은 늘 벅하다.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다음 날의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이 시인은 ‘이토록 귀하고 이토록 허무한 시간이기에 시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한다.

이 문장에서 ‘시’라는 단어를 ‘삶’으로 바꿔 읽는다면 이 책이 지닌 진심이 선명해진다.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야 하기에, 작은 것들에 다시 입술을 달아주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틴다. 결국 이 에세이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행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지친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회복의 기록이 된다.

이근화 시인의 산문은 이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삶이 고되다고 느끼는 독자에게, 이 책은 다정한 위로로, 혹은 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나친 아주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근화 시인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이근화 시인은 2004년 ‘현대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칸트의 동물원’, ‘우리들의 진화’, ‘차가운 잠’, ‘내가 무엇을 쓴다 해도’, ‘뜨거운 입김으로 구성된 미래’, ‘나의 차가운 발을 덮어줘’, 산문집 ‘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고독할 권리’, ‘아주 작은 인간들이 말할 때’ 등이 있다. 이 시인은 김준성문학상, 현대문학상, 오장환문학상, 상화시인상, 지훈문학상 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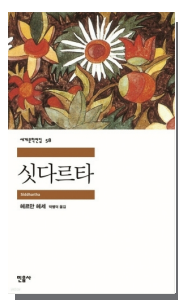
조혜원 기자

## 출판계도 불교… ‘초역부처의 말’ 베스트셀러 2위

선사에서 수행하는 고루한 종교. 예부터 내려온 불교에 대한 이미지다. 더는 아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는 트렌드하면서 세련된 종교라는 인상을 얻고 있다. 미혼 남녀의 만남의 소재로 한 ‘나는 절로’가 인기를 끌고, 불교 행사에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EDM)과 불경을 접목한 뉴진스님(가명)도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진행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0만명이 방문했고, ‘나는 절로’의 올해 첫 모집에는 1,300명이 지원했다. 뉴진스님이 등장하는 행사에 관중이 몰리는 건 어느덧 상수가 됐다.

불교의 이런 인기가 이제 출판계로 이어지고 있다. 6월 예스24에 따르면 ‘초역 부처의 말’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집계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1위)를 제외하곤 이 기간 저수가 없었다.

‘초역 부처의 말’은 2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화자해 온 부처의 말을 일반 승려 코이케 류노스케가 현대어로 재해석한 책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네게 올 테니”처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의 불교 사상을 담았다.

지난해 5월 출간됐으나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올해 1월 책을 추천하며 역주행했다. 언급 당일에만 전일 대비 20배(1,983.3%)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1월 전체로는 전월 대비 판매량이 15배(1,418.8%) 급증했다. 또한 언급 이후 14주 연속 인문 분야 1위 자리를 지켰다. 2030 독자 비율은 올해 30%로, 작년 대비 약

7%포인트 상승했다.

깨달음을 찾아 나선 한 청년의 여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 소설 ‘싯다르타’는 2년 연속 판매 상승세다. 전년 대비 43.4% 판매가 늘었던 2024년에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148%나 판매가 급증했다. 특히 2030세대가 올해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43.1%)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여러 불교 서적이 인기를 얻었다. ‘불교’, ‘부처’ 등 불교 관련 키워드를 토대로 한 인문 분야 도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불교 관련 인문서 판매량은 작년 동기(1.1~4.22) 대비 19배(1,878.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서 인기 속에 기대작들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죽문죽설’ 강연으로 사랑받은 법륜스님은 신간 ‘혁명가 붓다’로 돌아왔다. ‘혁명가 붓다’는 지난달 21일 예약판매 시작과 함께 ‘종교’ 분야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요즘 웹소설·웹툰 새 트렌드는 ‘괴담’

평범해 보이는 한 오래된 마트. 물건을 사러 무심코 들어간 순간 위화감이 느껴진다.

마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상품도 옛날 것들뿐이다. 문득 둘러보니 이벤트 공간에는 인육으로 보이는 고깃덩어리들이 즐비하다. 그렇다. 지금 당신은 괴담 속에 들어온 것이다.

6월 웹툰 업계에 따르면 괴담 장르가 최근 웹소설·웹툰 트렌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형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의 현대 판타지 장르 인기 1위 작품이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이하 괴담출근)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괴담출근’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느 날 괴담 세상에 떨어진 직장인 김솔음의 이야기

를 담았다. 이 작품은 누구나 작성·수정할 수 있는 ‘위키’ 형태의 괴담 세계에 빙의한 주인공을 내세워 에피소드를 선보이고, 위키의 순간마다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괴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다.

‘괴담출근’은 지난해 11월 9일 정식 연재를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1억회를 달성했다. 6개월 만인 현재는 1억6,000만회(5일 기준)를 기록 중이다.

웹툰 가운데서도 괴담을 소재로 한 신작들이 눈에 띈다. 네이버웹툰의 ‘통제구역관리부’는 이른바 규칙 괴담을 핵심 소재를 내세웠다.

한 회사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통제구역 관리하는 팀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웹툰은 3월 연재를 시작해 단번에 스킬러 장르 8위로 뛰어올랐다.

또 다른 웹툰 ‘44교시 생존 수업’도 괴담 장르로 분류된다. 이 웹툰 역시 2월 처음 연재를 시작해 현재 스킬러 장르 3위에 올라가 있다.

이들 괴담 웹소설·웹툰은 알 수 없는 괴물이 나 귀신이 나와 무작위로 생명을 위협하는 기존의 공포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잘 들여다보면 특정 시간에는 안전하다던가 패턴만 파악하면 살아나갈 길이 있다는 식의 ‘규칙 괴담’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시스템에 익숙한 독자들이 즐기기가 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웹툰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래도 괴담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창작하고 이를 공유하며 즐기는 문화였다”며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기존 에피소드를 비틀거나 아예 재창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새책 나왔어요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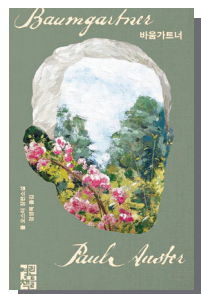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김중일의 세계철학전집’ 시리즈 다섯번째 책. ‘고정관념, 언어, 두려움, 관계, 일상’이라는 다섯 개의 주제를 하나씩 깨뜨리며 ‘낯선 곳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길을 제시한다. 작가는 헤르만 헤세의 사유를 자

기만의 시선으로 해석해, 독자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헤세의 철학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한 해설서가 아닌,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필사 문장과 흔들리는 내면을 일깨우는 성찰의 메시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이 어우러져 독자에게 지적인 전율과 내적 변화를 선사한다. 철학을 삶 가까이 끌어와 삶을 다시 써 내려가는 ‘진짜 탄생’의 길로 이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을지를 깊이 사유한다. 마인드셀프. 김중원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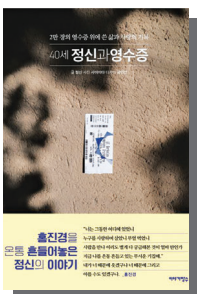
바움가르트너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폴 오스터가 투병 중 집필한 생애 마지막 장편소설. 바움가르트너는 기억의 정원 속 나뭇가지처럼 얽혀 있는 삶의 단편들을 하나씩 찾아간다. 소설은 1968년 뉴욕에서 가난한 문인 지망

생으로 아내를 처음 만난 이후 함께한 40년간의 세월, 뉴욕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양장점 주인이자 실패한 혁명가였던 아버지에게 대한 회상까지 한 인물의 일생을 훑어보며 그의 내적인 서사를 따라간다. 폴 오스터가 평생 동안 다뤄 왔던 주제인 글쓰기와 허구가 만들어 내는 진실과 힘, 그리고 우연의 미학에 대한 사유가 간결하고 섬세하게 집약된 이 마지막 유작은 죽음 앞에서 그 내려간 상실과 기억에 관한 소설이기에 더욱 절실하고 강렬하다. 열린책들. 폴 오스터 지음.

40세 정신과 영수증



SNS에서 젊은 독자들에게 언급되는 레전드 에세이의 주인공, 그리고 방송인 홍진경이 ‘지금 나를 온통 흔들고 있는’ 존재라고 언급한 정신 작가가 21년 만에 신간으로 돌아왔다. 23

세부터 매일매일 영수증을 모으던 정신은 지금도 영수증을 모은다. 그가 모은 영수증은 어느덧 2만 5,000장에 이르렀다. 해사하고 개성 넘치는 감성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20대를 보내던 정신은 어느덧 40대가 됐다. 막연하게 30대엔 인생의 단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단단한 일상을 가질 거라 생각했지만, 40대의 인생은 막막하고 막연하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지켜야 할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선물하며 물건과 장소에 남은 기억을 돌아보는 기록이다. 이야기 장수. 정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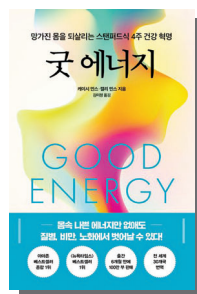
부서지는 아이들



이 시대의 표준 양육 방식으로 자리 잡은 ‘감정 존중 양육’과 ‘다정한 부모’라는 환상이 아이들의 성장과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양육 주도권이 부모에게서 전문가에게로 ‘외주화’된 세태를 파헤치며 단호한 훈육 대신 심리 치료와 약물치료가 남용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한 명의 단단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양육의 본질과 원칙을 예리하게 짚어낸다. 수많은 영미권 석학과 인플루언서들의 극찬을 받은 이 책은 부모들의 뼈아픈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미국공영라디오가 뽑은 ‘2024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바 있다. 웅진지식하우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굿 에너지



현대 의학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잦은 치료가 의존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는 늘고, 피로와 불안, 과체

중, 우울 등의 문제는 일상화됐다. 성인 10명 중 6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아이들조차 비만이나 지방간,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는다. 책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한 외과의 케이지 민스 박사는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수년의 임상과 실천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세포 에너지 장애라는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경제신문. 케이지 민스 지음.